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주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성숙에 이르도록 자람으로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됨

성경: 히 11:10, 16, 마 16:18, 계 21:2-3, 9-11, 18-20, 엡 2:20-22,
벧전 2:4-5, 고전 3:9-10, 12, 요 14:1-12, 23

- I.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실 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람으로써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 — 마 16:18, 히 6:1상, 11:10, 16, 계 21:2-3, 9-11, 18-20, 엡 2:20-22, 벧전 2:4-5, 고전 3:9-10, 12, 요 14:1-12, 23.
 - A. 하나님의 일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오늘날의 다윗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변화된 재료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치는데, 이것은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고 보배로운 돌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 벧전 2:4-5, 고전 3:12상, 왕상 6:7, 비교 대상 6:31-32.
 - B.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늘의 연합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속한 요소로 가득하고 절대적으로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계 21:2-3, 22, 엡 1:3, 2:6, 창 28:17.
 1.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 창 28:12, 17.
 2.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늘의 문인 벧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시다 — 창 28:12-17, 요 1:51.
 3.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엡 2:22),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4.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 히 4:16.
 - C. 신약의 전체 계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일의 유일한 목표와 궁극적인 결과는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1. 교회의 하락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빗나가서 새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많은 것들을 그들의 목표로 취했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한다.
 2. 따라서 교회의 하락 아래서 주님의 부르스에 응답하는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야 할 뿐 아니라,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대치하는 궁

정적인 것들을 더욱더 이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접할 때마다 매우 순수해야 한다. 우리는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 고전 3:12, 15-17.

3. 이기는 이의 목표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 이어야 한다.

II.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의 상태들을 봄으로써 건축된 교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A. 새 예루살렘과 같이,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 겔 48:35, 계 21:3, 22:3.
1.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신 것은 하나님과 어린양 자신이 성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과 함께 계시고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다 — 계 21:22.
 2.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건축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며, 개인주의적으로 될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에 대한 척도라는 이 원칙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4.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그 모든 일에 계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지고 논쟁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의 하나와 조화에 기인한 것이다.
 5. 하나님의 임재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전이신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
- B.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1. 교회가 건축되었다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 계 22:1.
 2. 어떤 교회 안의 성도들이 건축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 C. 건축된 교회는 생명의 흐름과 공급이 있다.
1. 새 예루살렘 안에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으며,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 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 계 22:1-2.
 2. 건축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적셔주는 생명수가 있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다.
- D. 건축된 교회는 빛이 있다.
1.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어린양은 등이다 — 계 21:23, 22:5, 비교 렘 2:11.
 2. 건축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건축된 교회의 집회에 갈 때, 빛 비춤을 느낄 것이다 — 요 8:12, 마 5:14, 시 73:16-17.
- E.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있으며,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다.
1. 새 예루살렘의 사면에 각각 세 문이 있는 것은 3과 4를 곱하여 12라는 수가 되는 것을 보여 주며, 이것은 또한 삼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암시한다(숫자 4는 피조물을 의미함) — 계 4:6.

2. 거룩한 성의 열두 문이 열두 진주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분비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것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상징한다 — 계 21:21.
 3.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3 곱하기 4의 산물,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결과이어야 하며, 또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어야 한다 — 고후 5:17, 갈 6:15.
 4.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진주 문은 사람의 타고난 모든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5. 우리가 타고난 것,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것, ‘기발한’ 것, 사람의 계획과 방법에서 비롯된 것, 혹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가져올 때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실 수가 없다 — 비교 고후 4:7-8.
 6.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어야 한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곧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이러한 입구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이끌릴 수 있다.
 7. 오직 이상만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각과 안목과 계획과 능력과 힘을 모두 십자가로 가져가서 처리 받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파쇄되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진주가 된 후에,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이끌릴 수 있다.
- F.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충만하다.
1.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으며, 이 길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순금이다 — 계 21:21하.
 2.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의 일상 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른다는 것을 상징한다 — 계 22:1, 벧후 1:4, 요 14:6.
 3.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본성 안에 살 때마다, 우리의 봉사는 교회의 건축을 산출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 G.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가진다.
1. 요한계시록 21장은 성벽이 벽옥이고, 첫째 기초석이 벽옥이며, 성의 빛이 또한 벽옥 같다고 말한다(18-19, 11절). 더욱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벽옥의 모양을 갖고 계신다(4:3). 따라서 성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2. 새 예루살렘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확장이자 완전한 표현이다. 교회가 참으로 건축되었다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가질 것이다.
- H. 건축된 교회는 변화시키시는 영과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1. 성벽은 보석들로 건축된다(계 21:19-20). 보석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 많은 압력을 통과하며 오랜 시간 동안 조성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변화됨으로 산출된 것이다. 보석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압력과 태움과 조성이 필요하다.

2.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의 변화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고후 3:18), 그 연인의 동반자들, 곧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은사 있는 지체들의 협력으로(엡 4:11-12, 아 1:10-11) 수행된다.
- I. 건축된 교회는 반드시 경계, 곧 ‘크고 높은 성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계 21:12.
 1. 성벽은 분별과 보호를 위한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분별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익을 완전히 보호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조성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악한 자에게서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생활 안에서 함께 건축되었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새 창조물에 속한 것과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을 쉽게 구별할 것이다.
 3. 모든 믿는 이는 분별되고 보호받기 위해 이러한 크고 높은 성벽이 필요하다 — 계 21:17.
 - J.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건축된 교회의 이 모든 상태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건축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건축된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볼 것이다. 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음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양 자신이 성의 중심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이 성과 함께 계시고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건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건축을 뒤따른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말해 주지 않는가?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건축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며, 우리가 개인적일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을 잃어버린다. 지난 장에서 나는 언제 복음 집회를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세 형제의 비유를 들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저녁에 복음 집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은 오후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침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그들은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세 의견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물을 것이다.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복음 집회를 할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때로 정해야 한다. 이것은 세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내

가 복음 집회를 저녁 7시 30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복음 집회를 오후 4시에 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오전 6시 30분을 제안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회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아침이건 오후이건 저녁이건, 어느 시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느 시간도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알고 이 원칙 안에서 산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형제자매들과 결코 다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다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란스러울 때에는 내려오지 않는 비둘기와 같다. 일단 우리가 논쟁하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릴 것이다. 최근 나는 해외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공원과 거리에서 많은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비둘기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원에 앉아 있으면, 비둘기 한 떼가 우리 앞으로 올 것이다.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 비둘기들은 모두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곳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면, 비둘기가 한 마리씩 다시 우리 가까이로 온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여러분의 생각이 옳고 여러분의 제안이 최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이 논쟁하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날아가 버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제안 안에 있는가?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볼 것이다. 우리가 서로 논쟁할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하고 우리의 주장은 아주 논리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논쟁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갖지 못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성을 헐어 버린다.

나는 내가 방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나를 매우 슬프게 했다. 내가 방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나는 나에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났다. 그들이 책임 형제들과 문제가 없다면, 그들은 사역자들을 비난하거나 교회에 불만을 가졌다. 분명한 한 가지는, 비난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판단과 비난이 옳든지 그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갖지 못하고 성전이신 하나님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이들 가운데에는 건축이 없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교회는 여러분의 논리를 합당하게 제시할 때 이득을 얻는 법원이 아니다. 교회는 결코 법원과 같지 않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따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더 멀리 떠나신다. 여러분의 논리가 백 퍼센트 맞을지라도, 모든 것이 여러분 편일지라도, 여러분은 논쟁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비둘기에 대해 좀 더 말해 보겠다. 비둘기는 여러분의 논쟁이 설득력이 있는지 관심하지 않는

다. 비둘기는 다만 여러분이 큰 소리를 내는지, 화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한다. 여러분은 비둘기를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의 눈이 가장 순수하다고 말한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나는 비둘기를 자세히 관찰하여 비둘기의 눈이 비둘기의 가장 예민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비둘기를 속일 수 없다. 어느 날 내가 공원에 있었을 때, 나는 여러 비둘기 중 한 마리를 유인하여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손을 조금 만 움직여도 비둘기는 재빨리 날아가 버렸다. 내가 손을 가만히 두면, 비둘기는 다시 왔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안의 성령의 임재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영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옳은지를 관심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다만 여러분의 태도와 의도와 상태를 관심하신다. 법정에서는 크게 논쟁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더 크게 논쟁할수록 손실이 더 크다. 우리는 따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잃어버린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전이신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가질 것이다.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짐

둘째로, 교회가 건축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를 갖게 된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이다. 이 건축물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다. 어떤 교회가 건축되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그곳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사람의 보좌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들의 봉사 집회에 참석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모두 보좌 위에 있다. 한 사람이 말을 마치면, 또 다른 사람이 연이어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제 보좌에서 내려오시오. 이번에는 내가 올라가겠소.” 그가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의 태도와 행동이 주는 인상이다. 그가 말을 마친 후에는 또 다른 자매가 “형제님이 말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자매는 매우 부드럽게 말하지만 동일한 인상을 준다.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이것은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상황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그곳에 있지 않게 됨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러한 곳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비록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지만,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가? 많은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건축도 볼 수 없다. 반대로,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사람의 재능과 조직만을 본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교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교제나 호응이 건축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조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도 없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든지 교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이러한 방법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건축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교회는 이러한 방법에 의존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건축되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축되었는지 건축되지 않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보아야 한다. 이것이 건축된 교회의 상태이다. 내가 실지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겠다. 한번은 한 형제가 나에게 이러한 간증을 하였다. “리 형제님, 저는 이삼 년 전에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모여 왔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은 매우 차갑습니다. 특별히 책임 형제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집회 전에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집회 후에도 사람들과 악수하기 위해 출입문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가 저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우 따뜻했고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예배하기 위해 그의 예배당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예배당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목사는 저에게 와서 인사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는 재빨리 문 쪽으로 와서 참석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정기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정 기간 그곳에 간 후에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외적으로는 매우 편안했지만 내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저는 형제들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제가 다른 기독교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느슨하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제 안에 저를 제재하고 느슨하게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체험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축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교제나 따스함이 있는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건축된 교회는 생명의 흐름과 공급이 있음

셋째로, 건축된 교회에는 생명의 흐름과 공급이 있다. 성경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에 달마다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음을 보여 준다(계 22:1-2).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에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있다. 또한 여기에 배고픈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필요한 공급을 얻을 수 있다.

참으로 건축된 교회에는 이러한 상태가 있다. 건축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움직임과 흐름을 만질 것이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급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종류의 체험을 했으리라 믿는다. 어떤 곳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일어난 형제자매들은 교리를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조화되었다. 여러분이 그들의 집회에 가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권위와 생명수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한 형제가 일어서서 몇 마디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공급을 느낀다. 또 어떤 형제가 간증하거나 어떤 자매가 짧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그 간증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영적인 음식임을 느낀다.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은 건축된 교회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말씀을 잘 전하는 두 명의 형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 그들 모두 언변이 뛰어나며 많은 빛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두 형제가 일어남으로 교회는 죽음으로 가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가 서로 조화되지 않고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주일 아침에 메시지를 전하면, 다음 주에 다른 형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첫 번째 형제의 메시지를 반론한다. 그리고 그다음 주일 아침에 첫 번째 형제가 다시 말할 때 두 번째 형제의 메시지를 반박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하고, 그들의 말은 유창하며, 그들의 구변은 탁월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예화나 성경 인용은 매우 적합하며 합당하다. 그들의 메시지는 참으로 호소력이 있으나 가련하게도 생수나 생명의 떡이 없다. 영 안에서 인식이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그곳에 건축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건축을 체험하고 성도들 가운데 조화가 있다면, 참으로 그곳에는 생수의 흐름과 생명의 떡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한 믿는 이들 가운데 가면 좋은 메시지는 들을 수 없으나 분명 살아 있는 음료와 음식을 접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생수의 공급을 받고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을 것이다.

건축된 교회는 빛이 있음

넷째로, 건축된 교회는 빛이 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빛이 있다(계 21:23). 이 빛은 천연적인 빛인 태양이나 달의 빛이 아니다.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리스도는 등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며, 이 영광은 이 성의 빛이다. 이 성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것은 이 건축물 안에는 천연적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또는 그들을 통하여 표현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갈 때에, 여러분은 그곳이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빛으로 가득한 집회소의 상황과 똑같다. 전기는 형광등을 통하여 표현되어 빛을 비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곳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은 의자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입구와 통로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건축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주 그곳에 빛이 있고 그곳이 매우 밝다는 것을 느낄 것이

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축된 교회의 집회에 가서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빛 비춤 받는 것을 느낄 것이다. 때때로 단지 기도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속은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 때때로 그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거나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심지어 그들의 집회의 분위기에 의해서도 여러분은 빛 비춤을 받고 분명하게 된다. 이것은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교회가 건축되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하나와 조화에 달려 있다. 이러한 하나와 조화가 건축이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마찰이 있고 의견과 부조화와 불일치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갈 때 빛 대신에 어둠을 느낄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가 매우 좋고 그들의 기도가 매우 뛰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빛도 느낄 수 없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건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교회가 건축되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다음 네 가지 상태에 있을 것이다. 첫째, 성전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과 공급이 있을 것이고, 넷째, 하나님의 빛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들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축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건축 안에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건축의 일*, 124-133쪽)